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정세와 경호조직 변천사

장철원* · 김상진**

〈목 차〉

- | | |
|------------------|--------------------|
| I. 서론 | II. 삼국시대의 정세와 경호조직 |
| III. 국왕 근시집단의 운영 | IV. 시위부의 성립과 운영 |
| V. 나말려초의 근시기구 | VI. 결론 |

〈요 약〉

국가의 성립과 발전에 따라 그 사회의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발생한다. 이 중 지배자는 다시 세분화되어 국왕이나 대통령 및 최고 집권자 등으로 구분되어 상대적으로 신변에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여러 작용이 발생하는 바, 이것을 일반적으로 경호라 한다.

따라서 경호의 시작은 왕권의 강화 내지 중앙집권화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처음에는 군사조직이 이를 대행해 왔으나, 점차 경호업무의 세분화·조직화에 따라 독립적인 부서로 자리를 잡게 된다.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경호는 왕권의 강화, 영토의 확장, 중앙집권화의 확립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배체제가 필요하였으며, 국왕 근시집단과 시위부가 성립하여 국왕을 시위하거나 사병적 역할을 담당하는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신라말에는 광범위한 관계개혁이 진행되어 중사성·선교성 등의 근시기구가 나타나며, 국왕과 태자의 시종뿐만 아니라 문한(文翰)의 업무도 장악하는 관부로 발전하게 된다.

국가의 성립과 발전에 따라 그 사회의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발생한다. 이 중 지배자는 다시 세분화되어 국왕이나 대통령 및 최고 집권자 등으로 구분되어 상대적으로 신변에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여러 작용이 발생하는 바, 이것을 일반적으로 경호라 한다. 따라서 경호의 시작은 왕권의 강화 내지 중앙집권화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처음에는 군사조직이 이를 대행해 왔으나, 점차 경호업무의 세분화·조직화에 따라 독립적인 부서로 자리를 잡게 된다.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경호는 왕권의 강화, 영토의 확장, 중앙집권화의 확립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배체제가 필요하였으며, 국왕 근시집단과 시위부가 성립하여 국왕을 시위하거나 사병적 역할을 담당하는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신라말에는 광범위한 관계개혁이 진행되어 중사성·선교성 등의 근시기구가 나타나며, 국왕과 태자의 시종뿐만 아니라 문한의 업무도 장악하는 관부로 발전하게 된다.

【주제어 : 경호, 삼국 및 통일신라, 국왕근시집단, 시위부, 나말려초】

* 성화대학 비서경호과 교수, 이학박사 (제1저자)

**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 박사과정 (공동저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기본적 욕구가 있는 바, 그 가운데 생명에 대한 안전 욕구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박연호, 1991). 경호라는 개념은 전근대사회의 왕이나 현대사회의 대통령, 그리고 최고집권자나 그에 준 하는 신분이나 지위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의 필요성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며, 모든 사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위해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한 여러 작용을 말한다(김두현, 1995).

우리나라에서는 고대국가가 형성·발전하면서 군사와 행정의 업무가 국가 운영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군사적인 업무는 국운과 연관되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군사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경호라는 개념은 당시에 군사 그 자체로 인식되었으나, 점차 분화될 여지가 보였다. 그러나 행정조직은 아직 분화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왕권의 강화 내지 중앙집권체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대개 경호의 시작은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한 것이었으며 그것의 변화에 따라 경호의 주체가 바뀌는 과정을 찾아볼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경호의 조직이 세분화·조직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바, 그것은 경호행정조직이 군사행정조직과 사법행정조직에 섞이어 나타나고 있으며,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도 경호업무가 자체적으로 독립되어 수행된 것이 아니라, 각 행정 부서를 통해 그 소관업무에 위배되는 사항을 스스로 단속하고 처벌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호의 업무는 포도, 왕실 및 행정기관의 경비, 순찰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므로, 이는 곧 현대적 의미의 경호와 유사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경호¹⁾라는 개념은 현대어를 편의상 사용하는 것이며, 그 내용도 시대별로 다양한 변화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호에 대한 논의는 각 시기를 구분하여 그 발전과정 내지는 의미부여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며(김형중, 1991 ; 김창호, 2001 ; 송영성, 1997 ; 송인주, 1997 ; 이충수, 1997 ; 김두현, 1995 ; 김재형, 1999 ; 김광기, 1998 ; 이상철·송상욱, 2001) 그 결과 전체적인 변화 내지 발전과

1) '경호'라는 단어의 의미가 현대어이기 때문에 사적고찰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나, 시대별로 그 의미가 상이하므로 편의상 본 연구에서는 '호위', '시위' 등의 의미를 '경호'라고 명명한다.

정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경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연원과 유사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개념이라든지 경호의 주체 설정, 그리고 그 업무과약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없지 않다.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논의를 적극 참조하면서, 아울러 보다 세밀한 자료의 보완을 통하여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경호에서 각국 정치조직을 통해 그 운영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신라를 중심으로 국왕 근시집단과 시위부의 성립과 운영 그리고 나말려초의 근시기구 등에 대하여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는 왕권의 강화, 영토의 확장, 중앙집권화의 확립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배체제가 필요하였으며 국왕 근시집단과 시위부가 성립하여 국왕을 시위하거나 사병적 역할을 담당하는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왕권의 강화와 경호체제가 중요시되어 가는 것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현대사회의 공경호체제의 흐름 즉,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으로 당선된 자 및 경호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와 대통령 관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던 대통령 경호실 및 이후 전직 대통령 및 그 배우자와 자녀의 호위가 추가되어 현재에 이르는 경호체제를 역사적 맥락을 통하여 이해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경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성과가 확충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고대국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접근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많은 자료의 접근이 필요한데 이를 활용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이 일차적 과제이며, 사료를 이용하면서 그 인접 학문과의 적절한 연계가 또 다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문헌기록과 이를 보완하는 금석문 등 다양한 자료의 이용이 현재로서는 긴급하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연구방법은 용이한 편이 아니라 그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역사적 접근만이 아니라 경찰과 군사, 그리고 사법적 기능을 규명하는 것이 경호사의 성립과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작업이다. 이 또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는 고대국가가 완성되는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의 역사상을 이해하고 그를 기초로 고대국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경호의 발전과 내용확충이 내재되어 있음을 밝혀보려는 것이다.

고대사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삼국사기』나 『고려사』·『고려사절요』, 그리고 이와 연관이 있는 각종 금석문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많은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그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하였다. 이후의 자료는 관계 법령이나 칙령 등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료를 섭렵하였고, 이를 연구한 연구서들도 폭넓게 인용하였다. 물론 이러한 논의에도 한계가 없을 수 없는 바,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법학·행정·군사 등 경호의 업무와 연계되어 있는 인접 학문에 대한 여러 연구 성과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그 토대 구축에 일조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물론 여기서는 그 이용에 한계가 있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시도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II. 삼국시대의 정세와 경호조직

고대국가의 성립은 왕권의 강화, 영토의 확장, 중앙집권체제의 확립, 종교·문화·예술의 발달 등의 비약적인 진보 내지는 발전을 가져옴으로써 전 시대와 비교하여 획기적인 역사와 전통을 수립하였다.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은 그 고대국가의 성립 시기는 다르지만, 고대국가체제를 정비한 시기를 기준으로 각 국가의 발전이 이루어졌음은 대략 동일하다고 하겠다(이기백, 1982).

삼국시대의 왕을 경호하는 주체는 대부분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사제도가 곧 경호제도에 해당된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당시 정세의 흐름과 군사조직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므로 정치조직 및 군사제도를 이해 할 수 있다면 당시 경호조직의 대두배경과 역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비록 경호제도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 수 없지만, 군사제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의 군사제도는 지방조직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아울러 국왕이 군사지휘권을 가지고 직접 군대를 이끌었던 점이 특징이었다. 특히 지방장관

은 해당 지역의 행정과 군사를 동시에 관할함으로써 삼국은 국가 전체가 하나의 군사 조직과 같은 인상을 준다(김창호, 2006:29).

1. 고구려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고대국가를 형성한 고구려는 한(漢)과 투쟁과정에서 부족연맹체를 형성하고, 1세기 후반 제6대 태조왕 때에 이르러 토지의 점유, 왕실의 치안유지, 부자상속제의 시행, 5부 개편정리 등 일련의 시책을 통해 주권을 확립하고 전제군주 정치체제를 갖추면서 실질적인 건국을 도모하였다. 그 후 4세기 중엽 소수림왕 이후 고구려는 전성시대를 맞이하는데 전진과 통교한 뒤 불교의 전래, 대학의 설립, 법령의 공포, 관료체제와 국가조직 정비에 노력하였으며, 광개토왕과 장수왕대를 거치면서 고구려는 미증유의 대제국으로 발전하였다(박범래, 1982:57).

고구려의 정치조직은 국왕 밑에 여러 관직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초기국가 고구려의 중앙관제를 기록한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주부, 우태, 승, 사자, 조의, 선인 등의 관직명이 있다. 상가는 각 부(部)의 장(長)인 대가 중에서 선출된 대표자로 보이며, 실제로 국왕 직속의 우두머리는 대로 또는 패자로서 대로가 있을 때에는 패자를 두지 않고 패자가 있을 때에는 대로를 두지 않는 것을 보면 이들은 국정을 관장하는 수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주부는 국왕과 대로 혹은 패자의 밑에서 왕명의 출납이나 국사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구려의 경호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대모달(大摸達)과 말객(末客)이다. 고구려는 왕위계승을 둘러싼 주살(誅殺)¹⁾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경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초기에는 형제상속으로 왕위를 계승하였으나 산상왕(山上王)²⁾ 이후부터는 부자상속으로 바뀌었다. 부자상속의 왕위계승을 둘러싼 정치는 귀족의 연립을 가져오면서 결국 왕은 궁궐문을 닫아걸고 스스로 지키는 정도의 무력한 존재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향으로 고구려 말기에는 대대로(1품)·태대형(2품)·울절(2품)·대부사자(3품)·조의두대형(3품) 등 5명이 국가의 기밀을 장악하고 국사를 도모하며 병사의 선발과 관작의 수여 등을 맡았다. 그 아래의 관직체계는 전하지 않는다. 다만, 무관으로

1) '誅殺'이란 범인의 죄를 물어 죽이던 일을 말한다.

2) 고구려의 10대 왕(197년~227년)

대모달이라는 위장군(衛將軍) 즉 지방의 전묘(殿廟) 수호병력과 같은 직이 있었는데 조의두대형 이상의 취임하였으며, 말객은 중랑장과 같은 것으로서 일명 군두(郡頭)라 하였는데, 대형(5품) 이상이 취임할 수 있었고 군사 1,000명을 거느려 궁성을 경비하였다(김두현, 1995:3).

2. 백제

백제는 북방에 위치한 부여와 고구려계의 유이민 부족으로서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부족연맹국가로 크게 성장하여, 고이왕 때에 고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근초고왕 때에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체제를 정비 하였다(김두현, 2004:74).

백제의 정치조직은 6좌평과 16등의 관등을 두었으나 고구려와는 달리 중국식 체제를 모방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좌평 및 달솔에서부터 나솔까지의 제술이 최고의 관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국왕 직속의 관직으로 좌보와 우보가 보이고 있으며, 6좌평 중에서 내법좌평은 예의사(예식)를 관장하였고 위사좌평은 숙위병사(친위)를 장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는 삼국의 치열한 정복사업으로 인해 왕과 왕실의 경호가 무척 중요한 일이었는데, 백제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경호를 담당하는 책임자와 위병을 두었으며, 위병은 왕의 친위대로서의 역할도 하였다(김창호, 2006:39). 내관은 궁궐내부의 담당관서로서 전내부(前內部), 곡부(穀部), 육부(육(肉)部), 내경부(內京部), 마부(馬部), 도부(刀部), 공덕부(功德部), 악부(樂部), 목부(木部), 법부(法部), 후궁부(後宮部) 등이 있어서 왕실 소속의 재물, 장전(莊田), 노예 및 예속민 집단 등을 관장하고 궁내부(宮內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수도(首都)는 5부로 나누고 각 부는 다시 5방으로 나누었는데, 각 부마다 500명의 군대를 편성하여 도합 2,500명이 교대로 왕성을 경호하고 도성을 경비하였다(김형중, 1991:20).

3. 신라

신라는 지리적 위치의 관계상 대륙문화와의 접촉이 뒤져, 초기 삼성교위(三姓交位)의 부족연맹이 내물왕 때에 비로소 김씨 왕권의 전제화가 이루어져 고대국가의 형성을 보게 되었다(김두현, 2004:75).

신라의 정치조직은 경위 17관등과 외위 11관등의 일원화된 정비로 인하여 중앙집권적인 귀족국가를 형성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병부·사정부·품주 등의 관부가 생겨나서 국무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혈통의 존귀함과 비천함에 따라 정치적인 출세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여러 특권과 제약이 부여되는 골품제가 그 중심에 있었다.

신라는 초기에 6부(部)의 장정을 징발하여 편성한 6부병(六部兵)이 수도를 수비하였다. 삼국전쟁이 격화된 544년(진흥왕) 6개의 부대를 통합하여 대당(大幢)을 편성하였다. 진흥왕의 영토확장과 더불어 설치된 상주정(上州停:552), 한산정(漢山停:新州停, 604)과 무무왕 때 우수정(牛首停:比列忽停, 673), 무열왕 때 하서정(河西停:悉直停, 658), 신문왕 때 완산정(完山停:下州停, 685) 등 6정(停)을 편성, 주치(州治)에 배치하였다. 이 외에도 서당(誓幢:583), 낭당(郎幢:625)이란 부대를 두어 국방에 힘썼다. 한편 군조직과는 별도로 왕궁 수비대인 시위부(侍衛府:624)도 있었다.

시위부는 신라시대에 왕궁을 호위한 무관청(武官廳)이었는데, 651년(진덕여왕) 설치한 것으로, 《당서(唐書)》에 의하면 '왕성을 호위하는 군대 3,000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681년(신문왕)에는 아찬(阿飡:6품)~급찬(級飡 :9품)의 장군 6명, 급찬~나마(奈麻:11품)의 대감(大監) 6명, 사찬(沙飡:8품)~사지(舍知 :13품)의 대두(隊頭) 15명, 대나마(大奈麻 :10품)~사지의 항(項) 36명, 대사(大舍:12품)~조위(造位)의 졸(卒) 117명을 두었다. 신문왕이 장군 6명을 둔 것은 김흠돌(金欽突)의 반란을 계기로 귀족들의 위협으로부터 왕권을 보호하는 시위부대를 강화하고, 그 격을 높이고자 함이었다.

여기서는 삼국의 경호체제를 다 다루지 못하고, 삼국 중에 사서나 금석문이 가장 많이 남아 있어, 그 체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신라 및 통일신라시대를 중심으로 서술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물론 자료의 부족도 한 원인이 되지만, 그 사회발전 단계가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면 그 사회를 움직이는 정치체제도 유사하게 운영되었으리라는 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차이점도 적지 않으나, 여기서는 그 유사점에 비중을 두려고 한다.

Ⅲ. 국왕 근시집단의 운영

『삼국사기』 신라본기, 직관지 등에는 신라의 경우 6세기 이래 서서히 관직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또 동시전, 병부 등 관부체계가 갖추어져가고 있었던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중앙행정관직과 관부, 지방통치조직, 군관직, 승관직의 일부가 설치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확한 설치연대의 기록은 없지만 이 시기에 존재했거나 설치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관직으로 품주, 장군 등이 더 찾아진다(이문기, 1982 ; 이문기, 1983 ; 이문기, 1990).

그러나 이러한 관직이나 관부의 설치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중앙신료들의 상황이나 정부 조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주는 바가 없다. 관등이나 관직의 미분화 상태에서 신료들을 서열화 하는 이별찬·이찬 등에 임명된 기사 외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삼국사기』의 미비점을 보완해 주고 그 이전 단계의 실상을 해명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바로 6세기의 금석문 자료이다. 그 가운데서 특히 유력한 단서가 되는 것이 「마운령 진흥왕 순수비」의 수가인명 부분이다. 이제 이를 도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마운령비 수가인명의 분석

구분	집단	職名	部名	人名	官等名	等級	備考
A	1	沙門道人		法藏			僧侶
	2	沙門道人		慧仁			
B	3	太等	啄部	居柒夫智	伊干	2	國政擔當 上級臣僚
	4	"	"	內夫智	伊干	2	
	5	"	沙啄部	另力智	迺干	3	
	6	"	啄部	服冬知	大阿干	5	
	7	"	"	比知夫知	及干	9	
	8	"	"	未知	大奈末	10	
	9	"	"	及珍夫知	奈末	11	
C	10	執駕人	啄部	萬兮	大舍	12	國王近 侍臣僚
	11	"	沙啄部	另知	大舍	12	
	12	裏內從人	啄部	沒兮次	大舍	12	
	13	"	沙啄部	非尸知	大舍	12	
	14	□□人	沙啄部	爲忠知	大舍	12	

15	卣 人	啄 部	與 難	大 舍	12
16	藥 師	沙啄部	篤支次	小 舍	13
17	奈夫通典	本彼部	加良知	小 舍	13
18	△ △	本彼部	莫沙知	吉 之	14
19	及伐斬典	啄 部	未法知	吉 之	14
20	襄內△△	△△△	△△名	吉 之	14

위 <표 1>은 진흥왕대의 모든 신료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이를 통해 진흥왕대의 전체적인 신료집단의 조직체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암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A집단은 2명의 승려로서 그 외의 관등을 소지한 인물들과는 구별된다. 다음 B집단은 대등(이기백, 1962)이라는 칭호 아래 기록된 비교적 고급 관등을 소지한 인물들이다. 이 대등이라는 직명의 임무나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견해가 제시되어 있지만, 일반 행정업무를 비롯한 국정 일반을 장악한 진골귀족 출신의 상급 신료들의 범칭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특정 업무를 분장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던 중앙 상급 신료들의 범칭이 대등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C집단은 대등집단에 비하여 낮은 관등을 소지하고 있고 일반 행정업무와 무관한 직명을 띠고 있어 구분이 가능하다. 이들은 곧 국왕의 사적인 업무를 맡은 국왕 근시 신료들이다. 여기에 보이는 직명은 국왕의 행차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약사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다. 이는 이러한 직명들이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미 관직으로 정착되어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이미 전문화, 세분화된 국왕 근시관직들이 두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마운령비>에 반영되어 있는 진흥왕대의 신료조직의 체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특징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첫째, 특정 업무를 관장하는 관직의 설치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앙의 상급신료들인 대등집단의 경우뿐만 아니라 국왕 근시직, 지방통치조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중앙행정을 담당하는 신료조직과 국왕 근시조직, 지방통치조직과 같이 보다 큰 범주의 신료들의 조직화 내지 계열화의 현상이 간파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후자는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업무를 관장하는 관직의 설치 이전의 신료들의 조직체계

를 암시하고 있어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의 <마운령비>에 반영된 6세기 중엽의 신료조직체계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신료집단의 조직화와 정부조직의 분화·발전과정을 단계화해 볼 수 있다. 가장 원초적인 단계는 국왕 예하에 미분화된 신료집단이 존재하는 단계일 것이다. 이 단계에서 신료집단은 상하의 종적인 서열화는 이루어져 가고 있었지만 국정 일반과 관련된 각종의 업무는 미분화된 신료들에 의해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처리되고 있었을 것이다.

다음 단계는 <마운령비>에서 유추되듯이 신료집단을 보다 큰 범주로 계열화하는 단계이다. 즉, 전체 신료집단을 중앙행정 담당집단, 국왕 근시집단, 지방통치업무 수행집단 등으로 계열화함으로써 일정한 수준의 조직화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는 물론 계열화된 조직체계 내부에서 관직, 관부가 분화되어 관료조직이 완결되어 가는 단계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고 초기의 국왕 근시집단은 진평왕대에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었다. 진평왕대는 일반행정 담당관직·관부의 설치 또는 조직화에 있어서 획기적인 시대로 이해되고 있거니와 그 사정은 국왕 근시집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근시집단에 있어서 나타난 하나의 변화는 그 수적인 증가 또는 확장현상이었다. 그 확장의 추세는 간접적인 사료에서도 짐작되지만 근시직의 하나인 사인의 증가에 따른 상사인·하사인의 분화에서 증명이 된다.

이런 근시집단의 확장과 함께 그 내부적인 조직화도 전개되었다. 대궁·양궁·사랑궁 등 삼궁에 분속되어 있는 근시집단을 통솔하기 위해 진평왕 7년 사신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삼궁관리 관부의 설치로 이해되며 동왕 44년에는 이들의 업무를 통합하여 내성이라는 관부를 설치하게 되었다.

內省 景德王十八年改爲殿中省 後復故 私臣一人 眞平王七年三宮各置私臣 大宮和文 大阿滄 梁宮首昫夫阿滄 沙梁宮弩知伊滄 至四十四年 以一員 兼掌三宮(삼국사기, 권 39, 잡지 8, 직관 中, 내성 조).

특히, 삼궁사신의 설치는 근시집단의 질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신은 사대등으로 직역될 수 있으므로 국왕 근시집단에 대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삼궁사신의 설치 이후부터 국왕 근시집단은 가신적 성격에서 벗어났고, 그 역할도 변해가게 되었다.

진평왕 44년 내성으로 체계화되면서 국왕 근시집단은 왕권을 지지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성장해 갔다. 내성은 궁정업무를 통괄하는 관부이자 근시집단을 통솔하는 관

부였는데, 그 장관인 내성사신은 내성이 왕권의 기반이 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내성사신은 1명으로 되어 있어 내성에 귀족세력이 침투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으며, 또 그 취임자는 국왕의 근친자로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내성사신직은 요직으로 성장하였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진평왕대의 근시집단은 활동성격에서 변화가 일어나 국왕의 사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외에 정치적 활동도 전개하고 있었다. 사인이 대궐 내 근시직의 임무에서 벗어나고 있고, 일부 근시신료는 고승을 왕궁으로 초치하는 임무를 맡는 등 왕권강화의 수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근시집단 내에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상문사가 설치되는 등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었다. 이것은 중대시대에 내성 관하에 내조가 형성되어 일반행정 관부체계와 함께 중요한 왕권의 기반이 되었던 것과 궤(軌)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IV. 시위부의 성립과 운영

『삼국사기』 직관지 무관조의 첫머리에는 시위부의 간략한 연혁·군관직과 그 정원·관등규정 등이 신라의 일반 군사조직에 관한 포괄적인 기록인 제군관·범군호와는 구별되어 기록하고 있다. 이는 신라 병제상에서 시위부가 차지하는 특이한 위치를 암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이기백·이기동, 1982).

시위부는 명칭 그대로 국왕을 시위할 목적을 지닌 금위병이었다. 모든 군사조직이 당시의 권력구조와 불가분의 관련성을 갖는 것이지만, 시위부는 그 본연의 임무와 기능으로 인하여 특히 왕권과 밀착되어 있었다. 이러한 시위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시위부에는 3도가 있는데, 진덕왕 5년에 설치하였다. 장군은 6인, 신문왕 원년에 감(監)을 파(罷)하고 장군을 둔 것이니, 관등은 급찬에서 아찬까지로 하였다. 대감은 6인, 관등은 나마에서 아찬까지로 하고, 대두는 15인, 관등은 사지에서 사찬까지로 하였다. 향은 36인, 관등은 사지에서 대나마까지로 하고, 졸은 117인, 관등은 선저지에서 대사까지로 하였다. 그 소속원들은 모두 180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당시 시위부의 역할의 중요성은 상당히 컸다(삼국사기, 권 40, 직관지(하) 조).

이를 통해 시위부의 부대 편제·연혁·군관직과 정원·관등규정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위부의 모습은 681년 이후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며, 하대의 변화상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이문기, 1990) 여겨진다. 시위부의 군관직 가운데 가장 먼저 두어진 것은 대감이었다. 무관조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진평왕 46년에 대감 6원(員)이 설치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이 대감 6원의 설치는 단순히 국왕을 시위하는 복수제의 무관직이 두어졌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국왕 측근에서 비조직적으로 그를 경호·시위하던 병졸집단을 지휘·통솔하는 관직이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위부는 진평왕 46년(624) 대감의 설치를 기점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크게 보아 왕권강화정책의 한 고리로 이해되지만, 진흥왕대의 대당 및 정제 설치 이래 계속 증가된 군사조직이 골품제의 제약으로 진골귀족의 손에 장악되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려는 진평왕의 현실적 필요성이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진평왕은 전렵을 통해 측근 군사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바탕 위에서 이들을 통솔하는 관직으로 대감 6원(員)을 설치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위부는 선덕여왕 말년에 일어난 상대등 비담의 난에서 실제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드러냈다. 그래서 진덕왕 5년(651) 국왕과 당시 막후의 실력자였던 김춘추·김유신 일파는 시위부에 대한 일대 개편을 단행하였다. 우선 김유신이 선덕왕의 허락하에 모병한 바 있었던 군사력을 시위부에 편입시켜, 증가한 병졸집단을 삼도 즉, 3부대조직으로 편성하고, 또 시위감 - 대감 - 대두 - 항 - 졸의 군관직 체계를 정비하였다. 이로써 시위부는 일단 하나의 군사조직으로 완결되었다.

신문왕 원년(681)에 일어났던 김흠돌 난은 시위부 재편의 계기를 제공하였는데 그것은 이 반란에 시위부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문왕은 시위감을 혁파하고 장군 6인을 두는 한편, 시위부에 진골세력의 침투를 막기 위해 일반 군사조직의 장군과는 달리 장군직에 진골독점규정을 폐지하고 관등을 ⑨급별찬~⑥아찬으로 정하여 육두품에게도 개방함으로써 전제왕권의 무력적 기반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립된 시위부는 궁성의 숙위·국왕 및 왕실세력 행차시의 호종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왕의 측근 군사력으로서 일반 군사조직이 붕괴되는 하대까지도 의연히 존속하였다. 중대에는 진골귀족 세력의 침투를 배제하기 위해 장군직을 육두품에게도 개방하였고, 국왕이 직접 모병한 병졸집단을 친히 지휘·통솔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시위부는 국가적 공병조직 가운데서 국왕 개인의 사병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한 군사조직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시위부는 이러한 성격으로 인하여 하대의 일반 군사조직이 붕괴되고 사병이 발생

하는 상황에서 국왕의 사병을 포괄하는 조직으로 강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족병 등이 구성분자로 편입되었고 왕제와 같은 측근이 시위부를 장악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위부의 강화에 따라 왕도 수비의 중핵적인 부대로까지 기능 하게 되었고 『구당서』에는 이것이 '사자대'라는 명칭으로 기록되고 있다. 요컨대, 시위부는 국왕측의 현실적 필요성을 배경으로 왕권의 강화 내지 전제화의 범주 속에서 성립된 것이며, 중고기 군사조직과의 관련하에서 보자면 개별적 모병을 통해 충원되는 새로운 유형의 군사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것이다.

V. 나말려초의 근시기구

신라는 三代, 즉 上代·中代·下代로 구분하는 바, 그 가운데 下代에 대한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사가 그 자체 불충분한 것임은 다 아는 사실이다. 상대등이나 집사성의 시중에 대한 보임 기사, 혹은 천문관측에 대한 기사 등은 거의 빠짐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동 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당나라와의 외교관계는 그 자체 중요하게 인식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 관계 기사에도 누락이 많은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이기동, 1984).

더욱이 나말려초의 신라관계 금석문을 살펴보면, 신라 하대에 광범위한 관제개혁이 진행되고 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으나, 『삼국사기』 신라본기는 물론 직관지에도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특히 9세기 중엽 이후에 대두한 것으로 보이는 중사성·선교성 등의 근시기구는 주목된다.

중사성은 신라시대에 있어 국왕 측근의 소위 근시기구였다. 이 관부에 대하여는 『삼국사기』 직관지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① 洗宅 景德王改爲中事省 後復故 大舍八人 從舍知二人
- ② 洗宅 大舍四人 從舍知二人

여기서 ①의 기록은 국왕 직속의 세택을 가리키며, ②의 세택은 동궁 관아의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대에 있어 세택이 중사성으로 개명된 사실은 경덕왕 때의 개정 관부·관직명과 무관하지 않으나, 직관지(중) 세택 조에는 중사성이 담당하는 소관업

무에 대해 하등 기재된 바가 없다. 그러나 중사성이라는 그 명칭으로 보아 이는 금중의 사무를 처리하는 관아였던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한편 중사성의 명칭이 그 후 신라의 멸망 시 까지 그대로 사용되었던 것은 다음 2개의 금석문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③ 獻康大王遼飛鳳筆徵赴龍庭 仍以師子山興寧禪院隸于中使省屬之

(조선금석총람 上, 영월 흥녕사징효대사보인답비).

④ 聞大師時尊天下獨步海隅久栖北岳之陰潛授口山之法 興輪寺上座釋彥琳 中事省内養金文式卑辭厚禮至切嘉招大師

(조선금석총람 上, 창원 봉림사진경대사보월능공답비).

위의 두 비명 가운데 ③은 헌강왕 8년(882) 직후의 사실로서 동왕이 징효대사 절중이 거주하던 흥녕선원을 중사성에 예속시킨 사실을 보여주는 바, 이 중사성은 중사성의 오기라고(이기동, 1984) 이해된다. 또한 ④는 효공왕대(897~912) 이후 경명왕 2년(918) 직전의 사실로서 진경대사 심희가 봉림사에서 선종을 크게 떨치자, 王이 석 언림과 중사성의 내의 김문식을 보내 동 대사를 왕경에 초치한 사실을 보여준다.

앞에서 본 『삼국사기』 직관지(중) 세택 조에는 중사성이 담당하는 소관업무에 대해 하등 기재된 바가 없다. 그러나 중사성이라는 그 명칭으로 보아 이는 금중의 사무를 처리하는 관아였던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금석문 ③에는 이를 중사성이라 표기하였거니와 이는 문자 그대로 천자어용의 사인인 중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관아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 역시 중사성과 같은 의미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동 자료 ④에는 김문식을 중사성 내양이라 하였는바, 이 내양이란 사인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그 자체 근시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존 금석문 자료에는 신라 말기에 국왕 직속의 중사성 사인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궁 중사성에 중사인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그 실재에 대하여는 의심할 바 없을 것이다. 나아가 신라 말기에 있어서도 중사성의 사인이 문사로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신라시대의 중사성은 국왕 직속의 그것과 동궁 직속의 그것이 각각 따로 존재하였던 사실, 그리고 그것이 국왕이나 왕태자에 대한 시종의 임무뿐만 아니라 동시에 조고를 전장하는 등 문헌을 장악한 관부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사성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관부에 선교성이 있어 주목된다. 이에 대하여는 『삼국사기』 직관지에 하등 기재된 바 없으나, 현존 금석문 자료

에는 그 기록이 보이고 있다.

- ⑤ (헌안대왕) 선제십사년…敎下望水里南等宅 共出金一百六十分 租二千 斛 助充裝 謗功德 寺隸宣敎省(조선금석총람 上, 장흥 보림사보조선사창성탑비).
- ⑥ (대부대왕) 내명십계제자 宣敎省副使 馮恕行 援送歸山 使待兎者離株 羨魚者學網 出處之是五焉(조선금석총람 上, 문경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

그 내용을 살펴보면, 헌안왕이 동 4년(860) 보조국사 체징을 가지산사에 이거하게 하고, 망수택·이남택 등 소위 금입택에 명하여 동 사에 금과 조를 시주하게 한 다음 동 사를 선교성에 예속시킨 사실이 있으며, 또한 헌강왕이 동 7년(881) 경주에 불러 온 지증대사 도헌을 선교성 부사 풍을 수행시켜 본래의 산사에 돌아가게 한 사실이 보이고 있다. 아마도 선교성은 그 명칭으로 미루어 볼 때, 발해의 선조성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국왕을 곁에서 보위하면서 주로 교서(조서)를 선포하는 관부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VI. 결 론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경호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경호조직의 변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보았다. 그 결과 경호의 원초적인 형태는 왕권의 강화, 영토의 확장, 중앙집권체제의 확립 등의 변화가 보이는 삼국시대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었으며, 특히 신라의 국왕 근시집단이나 시위부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근시기구 등은 국왕을 시위하거나 사병적 역할을 담당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실상 삼국, 즉 고구려·백제·신라에 공통적으로 존재했으리라 여겨지며, 신라말·고려초에는 광범위한 관제개혁이 진행되어 이러한 조직체계가 결국 이후의 경호제도와 밀접한 연관 아래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공경호는 대통령이나 국가요인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을 때, 국가의 안전보장은 중차대한 위협에 처해지고, 사회 혼란으로 인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지구상에서 절대적이고 완벽한 경호란 결코 가능하지 않다. 단지 절대적이고, 완벽한 경호행위를 추구하기 위해 제반작용 요소들을 최대

한 가동시켜 국가요인에 대한 암살 및 테러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로 사전 예방적인 차원 즉, 예방경호에 중점을 두고, 각종 테러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데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근대사회의 왕실이나 중앙행정조직과 연관된 자료나 체계 내에서의 이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근대사회 이후의 경호체제를 좀 더 적극적인 자료 발굴과 다양한 접근 아래 그 체계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근대사회 이후의 자료가 소략하거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이유는 그 나름의 문제가 있으므로 차후의 연구과제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 분야는 그러한 자료의 확보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관·공의 경호조직에 대한 경호 이외에도 최근 경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이 대두됨에 따른 사적인 경호조직에 관한 내용도 경호의 변천과 관련하여 새로이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한다. 이 또한 현대사회의 다변성과 다양성에 기인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작업은 전근대사회의 연구가 누적되고, 이후 근대사회의 성격이 규정됨으로써 현대사회의 경호체제에 대한 성격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는 학제간의 연구 성과가 요구되며, 또한 사회성격과 연관 지어 연구될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급변하는 국가정세와 국제적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선진경호체계로서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며, 이에 여러 가지 대응 시스템을 연구·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삼국사기』 권 39. 잡지 8, 직관 중, 내성 조.
- 『조선금석총람』 上. 영월 흥녕사징효대사보인탑비.
- 『조선금석총람』 上. 창원 봉림사진경대사보월능공탑비.
- 『조선금석총람』 上. 장흥 보림사보조선사창성탑비.
- 『조선금석총람』 上. 문경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
- 김두현(1995). 『경호학개론』. 도서출판 쟁기.
- 김창호(2006). 『한국경호발달사』. 백산출판사.
- 김형중(1991). 『한국고대경찰사』. 수서원.
- 박범래(1982). 『한국경찰사』. 경찰대학.
- 박연호(1991). 『인간관계론』. 박영사.
- 이기백·이기동(1982). 『한국사강좌』. 고대편.
- 김광기(1998). 「조선시대 무예사를 통한 경호제도의 고찰」. 건국대 박사논문.
- 김두현(1995). “조선왕조시대의 경호 법원 및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
- 김두현(1995). “우리나라 경호제도의 사적고찰을 통한 현대 경호행정조직의 발전방안 고찰”. 『한국체육대학교 논문집』.
- 김재형(1999). 「조선시대 왕실호위군의 사적 고찰 ; 금군을 중심으로」. 용인대 대학원 석사논문.
- 김창호(2001). “신라시대 경호제도에 관한 사적 고찰”. 『경비경호연구』 4.
- 송영성(1997). 「고려초기 시위군에 관한 소고」. 경희대 석사논문.
- 송인주(1997). 「고려시대 금군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 이문기(1982). “신라 진흥왕대 신료조직에 관한 일고찰”. 『대구사학』 21·22합.
- 이기백(1962). 「대등고」. 『역사학보』 17·18합.
- 이기백·이기동(1982). 『한국사강좌』. 고대편.
- 이기동(1984). 「나말려초 근시기구와 문한기구의 확장」. 『신라 골품제사회와 화랑도』.
- 이문기(1990). “삼국사기직관지 무관조의 사료적 검토”. 『역사교육논집』 15권.
- 이충수(1997). 「조선왕조시대 시위제도의 사적 고찰」.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이상철·송상욱(2001). “조선시대 왕실 호위조직에 관한 고찰”. 『한국안전교육학회지』. 4권 1호.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 of Three States and Unified Silla Guard Organization History

Jang, Chul Won

Kim, Sang Jin

A regular aperture occurs between persons controlled and a person governing the society according to national formation and development. A ruler is subdivided into a king, the President, or the highest controller who can feel the uncertainty of ruler's position. To protect those people, it is called guard that used all possible means and ways to protect those people or remove the danger. An opening of guard was related to enhancement of royal authority or centralism. Firstly a military organization had acted for this, but the organization gradually became independent according to its subdivision and systematization.

During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and Unified Silla, the guard was needed new management system by enhancement of royal authority, expansion of the territory, and establishment of centralism. The new management system that organized the group of vassal and Siweebu take charge of guarding the king or serving as private soldiers. In the end of Silla, as a wide range of reforma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 the organization of vassal like Jungsasung and Sunkyosung that developed as not only guard the king and prince but also hold the business of writing.

【Key words : Security service, Three States and Unified Silla, the Royal Guards, the Royal Body Guards, The end of sila's period the early of Korea】